

빅터 & 롤프(Victor & Rolf)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연구

이지현 · 노윤선*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강사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요약

과도함과 극단을 추구하는 맥시멀리즘(maximalism)은 새로움과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현대 패션계에 무한한 상상력과 실험적인 디자인, 기술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시 여기는 현대패션경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디자이너의 감각을 실현하는 표현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빅터 앤 롤프 작품을 맥시멀리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디자인감각과 표현방법을 통하여 맥시멀리즘의 무한한 잠재적 표현영역을 확인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과도함과 극단적인 형식의 확장으로 대두된 맥시멀리즘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발상과 실험적인 작품세계를 지니고 있는 듀오 디자이너 빅터 앤 롤프의 작품을 통하여 맥시멀리즘 특성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빅터 앤 롤프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특성은 확대성, 장식성, 환상성, 퓨전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확대성은 빅터 앤 롤프 작품의 맥시멀리즘 특성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맥시멀리즘의 사전적 의미인 '최대한의, 극대의'란 뜻에 걸맞게 최대주의를 내세우며 표현방법에서도 형태의 확장과 과장이 주를 이루었다. 둘째, 장식성은 이들 특유의 유티와 독창적인 디자인 세계를 장식적인 요소로 발전시켜 리본, 러플의 과다사용으로 나타났으며, 장식자체로 거대한 볼륨감을 표현하고 의복의 한 디테일을 과장시키거나 장식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셋째, 환상성은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패션에 접목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으로 일상적인 사물이 이동한 형상의 작품은 상징적이며,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충격을 주었다. 넷째, 퓨전성으로 전통적인 클래식과 전위적인 아방가르드의 믹스가 대표적인 표현방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실험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빅터 앤 롤프의 작품은 상상력을 기술력과 결합하여 그들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과도함과 극단을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적 시도가 계속되어 더욱 창의적이고 기발한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빅터 앤 롤프, 맥시멀리즘

I. 서론

21세기 패션에서 현대적, 도시적 감성의 미니멀리즘(minimalism)이 지속적인 트렌드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맥시멀리즘(maximalism)이 낭만주의와 유희성을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있다. 과도함과 극단의 추구경향인 맥시멀리즘은 중세 이후 패션에서 거대한 볼륨과 호화로운 장식 등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근대 이후 인간이 이성과 합리를 중시하고 단순성, 기능성과 실용성을 추구한 이래 미니멀리즘 패션과 대조되면서 더욱 흥미롭게 부각되고 있다. 디자이너들은 과장된 장식과 유희성이 돋보이는 맥시멀리즘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큰 것이 아름답다는 심미적 원천에 기초를 두고 왜곡성, 변형성, 과장성 등의 요소를 혼합하여 복잡함을 매시시키는 방법을 다루었고, 이는 불균형과 왜곡의 이미지를 포함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빅터 앤 롤프(Victor & Rolf, 1969)는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를 하여 패션계에 주목받고 있는 듀오 디자이너로 독창적인 디자인은 물론 무한한 창의성으로 독특하고 위트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멋진 옷을 만드는 것으로써가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하였으며, 패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의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패션에 대한 개념으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과 과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디자이너인 만큼 작품에서 과도함과 극단을 추구하는 맥시멀리즘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맥시멀리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독특하고 기발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빅터 앤 롤프 작품의 중요한 표현방법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로는 맥시멀리즘과 복식에 관련하여 맥시멀리즘의 조형적 특징인 복식확대와 미

적가치에 대한 연구(김호정, 2005¹⁾; 성광숙, 2003²⁾)와 맥시멀 룩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변혜진, (2006)³⁾, 현대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을 연구한 (박은경, 2008⁴⁾; 이효진, 2003⁵⁾) 선행 연구가 있고, 디자인의 표현성과 패션 표현유형에 관한 연구 (김현진, 이은숙, 2011⁶⁾; 정선화, 정현주, 2009⁷⁾)가 있다.

빅터 앤 롤프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로는 발상과 작품에 대한 김지영(2010)⁸⁾의 연구와 초현실주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영민 외(2007)⁹⁾가 최근에 이루어 졌을 뿐 이들 작품세계의 중요한 표현방법인 맥시멀리즘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빅터 앤 롤프 작품을 맥시멀리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디자인감과 표현방법을 통하여 맥시멀리즘의 무한한 잠재적 표현영역을 확인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와 서적, 해외서적을 중심으로 문헌 자료를 살펴보고 맥시멀리즘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이론적 연구를 적용하여 빅터 앤 롤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빅터 앤 롤프 컬렉션 자료는 패션 전문 인터넷사이트(www.style.com)와 빅터 앤 롤프의 작품세계 및 디자인 철학을 다룬 단행본 서적 등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연구범위는 빅터 앤 롤프가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한 1995년도부터 2011년 F/W 현재까지의 여성복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맥시멀리즘의 개념

<더 많은 것이 더 많다> 또는 <큰 것이 아름답

답다>는 심미적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맥시멀리즘은¹⁰⁾ ‘가장 효과적인[완전한]’, ‘최고의’, ‘최대한의’, ‘극대의’의 뜻을 지녀 ‘미니멀(minimal)’의 반대어가 되는 형용사 ‘맥시멀(maximal)’¹¹⁾에 명사, 주의, 학설, 이즘(doctrine)을 뜻하는 접미사 ‘ism’이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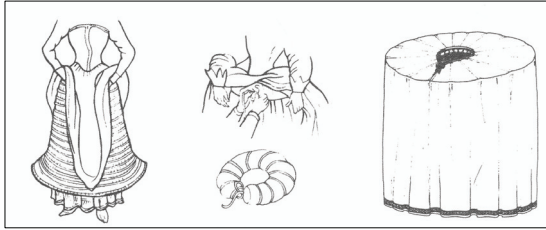
김정연(2006)¹³⁾은 맥시멀리즘 패션에 대한 정의로, 꿈과 낭만,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요소들이 새천년 이후 현대 패션에 공존함으로써 표면화된 어두운 세계의 이면에서 희망과 평화로움을 공유하는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이 형성되었다고 하였으며, 김현진, 김해경(2011)¹⁴⁾은 육중함, 확대함, 과도함 등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유형, 화려함, 독특함, 호화스러움, 부조화 등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유형, 형식적인 스타일의 탈피경향에 의한 기괴함, 유희성, 의외성 이미지를 포함하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였다. 김호정(2005)¹⁵⁾은 1990년대의 대표적 패션경향인 미니멀리즘에 싫증난 새천년 패션디자이너들이 과장된 장식과 재미를 추구하는 맥락에서 맥시멀리즘 패션의 개념을 설명하였으며, 변혜진(2006)¹⁶⁾은 화려함과 장식성, 섬세함과 호화로움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이효진(2003)¹⁷⁾은 맥시멀리즘은 세계통합주의와 지역중심주의, 동질화와 이질화라는 이분법적 대립이 아닌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는 개념이라 하였고, 이희정(2008)¹⁸⁾은 미니멀리즘의 원리와는 달리 복고풍이 반영된 모든 디테일과 과장된 장식, 재미를 추구하는 양식적 특성을 일컫는다고 맥시멀리즘의 개념을 이해하였다.

맥시멀리즘은 문학과 예술비평에서 일부 언급되면서 형성되었는데 그 기원은 가깝게는 고대 희랍과 로마시대의 작가들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맥시멀리즘이 하나의 독자적인 소설 유형으로 발전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로서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크게 유행하였다. 그동안 ‘빅 북’이나 ‘토탈 소설’ 또는 ‘메가-소

설’ 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리워 온 맥시멀리즘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있는 폭넓은 지식을 지향한다. 일종의 백과사전적 성격을 지니는 이 유형의 소설은 문학과 예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과학과 기술, 심리학, 인류학, 철학, 역사, 종교, 문화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지식이나 학문 분야를 취급하기 일쑤여서 맥시멀리즘 소설은 물리적인 면에서 상당히 길이가 길고 규모가 크며 거의 예외 없이 몇 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되어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바스는 음식물의 메타포를 사용하여 미니멀리즘을 저칼로리의 규정식에, 맥시멀리즘을 칼로리가 풍부한 영양식에 각각 비유한 바 있다.¹⁹⁾ 회화에서의 맥시멀리즘은 같은 이미지의 반복적 대량생산과 대중적 이미지를 복사, 사용하는 기법으로써 자극적이며 선명한 효과에 의한 강조 등으로 나타났으며, 건축에서의 맥시멀리즘은 상이한 양식요소들의 결합을 통하여 육중함, 풍만함, 다양함, 화려함, 역동적 효과, 과도함의 추구경향으로 나타났다.²⁰⁾

2. 맥시멀리즘 패션의 역사적 경향

건축, 디자인, 패션에서 과도함이나 지나친 장식경향은 사회·경제 변화, 기술 발달 및 이에 따른 미의식 등 시대 변화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 것은 16세기 르네상스 후기, 17세기 바로크, 18세기 로코코 시대와 19세기 중후반이며, 20세기는 후반기의 포스트모더니즘 시기로 볼 수 있다.²¹⁾ 르네상스 시대의 패션은 구성요소들을 복잡하게 배치하였으며 인체미를 강조한데서 나아가 형태를 과장시켰고 호화 장식을 넘치게 사용하였다.²²⁾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한 도구로 파딩게일(farthingale) <그림 1>을 처음으로 만들어냈고²³⁾ 프릴에서 발전된 칼라 형태인 러프 칼라(ruff collar) <그림 2>가 압도적으로 성행하였다<그림 3>. 바로크 시대의 패션은 전체 조화에 관계없이 거창



<그림 1> 파딩게일, 1580년경
(출처: 서양복식사, 2006, p.162)



<그림 2> 러프칼라, 1590년경
(출처: 서양복식사, 2006, p.158)



<그림 3> 엘리자베스 1세, 1599년경 (출처: 현대패션과 서양복식문화사, 2008, p.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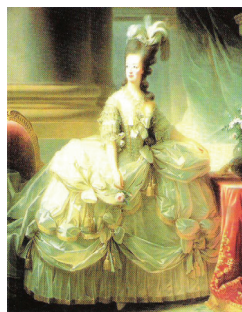
한 가발, 거대 실루엣, 화려한 직물에 각종 요소들이 화려하고 지나치게 장식되어 요란한 취향이 전보다 더 강조되었다.24) 그러나 파딩게일과 같은 스커트 버팀대는 사용하지 않고 여러 겹의 페티코트(petticoat)를 착용25)하여 비교적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로코코 시대에는 인간내면 감정의 욕구와 쾌락적인 생의 욕구가 모든 생활영역에 나타나면서 패션은 섬세하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되어 여성의 경우 극도로 허리는 조이고 스커트는 넓혔으며 각종 장식으로 복식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사치스럽고 화려한 경향을 띠게 되었다.26) 특히 로코코 시대에는 복식사상 가장 과장된 장식을 사용했던 시기로 레이스, 리본, 꽃장식 등을 섬세하게 이용하여 아름다운 예

숭작품과도 같은 의상들이 나타났다. 의복의 과장과 함께 머리 모양도 과장되었으며 거대한 머리모양과 확대된 스커트가 당시의 사치스러운 생활상을 반영하며 과장되고 화려하게 나타났다<그림 4>, <그림 5>.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는 스커트를 부풀리는 버팀대가 재료와 형태를 달리하며 이어져 오다가 로코코 시대에는 좌우로 확대되는 파니에(panier)가 생겨났다. 양옆이 극단적으로 확대되는 파니에 <그림 6>은 스커트를 인위적으로 부풀게 하여 거대한 머리장식과 함께 로코코 시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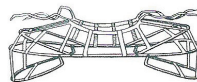
향락적이고 사치스런 회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의복 요소로 나타났다. 19세기 중반 크리놀린(crinoline)시대는 스커트 실루엣이 확장되어 폭이 역사상 가장 넓은 둘레 10미터에 달하였다. 크리놀린은 둥근 돛형으로 스커트를 넓게 퍼지도록 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이 거대한 버팀대는 로



<그림 4> 마담 폰파두, 1759 (출처: 서양의 복식문화와 역사, 2008, p.225)



<그림 5> 마리 앙투와네트, 1783 (출처: 서양의 복식문화와 역사, 2008, p.228)



신축성 있게 접히는 파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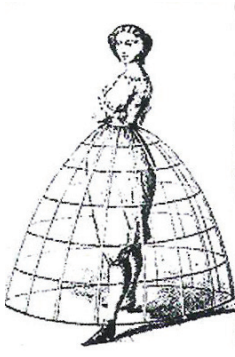


파니에 두분



파니에 실물

<그림 6> 파니에, 1760년대 (출처: 서양복식사, 2006, p.218)



<그림 7> 새장형태의 크리놀린, 1858 (출처: 현대패션과 서양복식 문화사, 2008, p.249)



<그림 8> 새장형태의 등글개 커진 스커트의 이브닝 드레스, 1850년경 (출처: 서양의 복식문화와 역사, 2008, p.291)

코코 시대의 동경에 의한 것으로, 당시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여성들의 미의식이 반영된 것이었다. 크리놀린의 크기는 점차 거대해져 복식사상 최대로 넓게 부풀렸다<그림 7>, <그림 8>.

조형예술에 나타난 과도함과 극도의 장식적 경향은 19세기 말부터 단순성 강조로 변하였고 20세기에 들어서는 패션도 단순화, 장식의 절제 경향으로 나아갔다. 현대 패션에서는 1960년대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찬 라크루와(Christian Lacroix)에 의해 자신의 매우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이국적 패션을 가리켜 맥시멀리즘²⁷⁾이라고 언급한 이후 1970년대를 전후로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과도의 경향이 다시 나타났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20세기 이전의 복식에서 보였던 과도함과는 다르게 절충되고 조화되어 다소 약화되어 표현되었으나 최근에는 디자이너의 실험정신이나 아이디어의 표현, 디자인 철학을 대변하는 하나의 중요한 표현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 특성

패션에서의 맥시멀리즘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형태나 실루엣, 액세서리에서부터 부분적인 디테일이나 재단, 장식으로 나타나기도 하

며 그것이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한다. ‘큰 것이 아름답다’라는 맥시멀리즘의 궁극적 심미성은 과장, 복잡, 화려, 다양, 섬세, 혼합 등으로 각각 표현되거나 서로 조합되어 표현되고 있다.²⁸⁾

권정숙(2008)²⁹⁾은 구두디자인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특성으로 과장과 집중, 왜곡과 변형, 이접과 혼재가 미적 특징이라고 하였으며, 김현진, 이은숙(2011)³⁰⁾은 글래머, 과장 등이 주는 육중함, 과도함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유형은 ‘확대 과장성’으로, 퓨처리즘, 키치, 글램록, 히피록에서 나타나는 기괴함, 화려함, 강조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유형은 ‘장식성’으로, 복고, 로맨틱 히피록, 민족적 스타일 등의 다양성, 독특성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유형은 ‘혼합성’으로, 비대칭과 비구조적 스타일이 주는 불균형, 왜곡성, 운동감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유형은 ‘비구조성’으로 명명하였다. 김호정(2005)³¹⁾은 옛것을 새롭게 독특하게 표현하고 해석하려는 복고스타일과 다양한 민족적 특징을 보이는 에스닉 스타일로 표현되어 진다고 하였고, 박은경(2008)³²⁾은 여러 분야와 스타일을 융합하는 특성 및 공감각을 퓨전성, 럭셔리는 주로 장식적으로 드러나기 쉬우므로 장식성에 포함시켜 퓨전성, 확대성, 장식성, 환상성으로 분류하였다. 변혜진(2006)³³⁾은 맥시멀리즘적 현상이 의복에 나타났을 때 맥시멀 룩이라 할 수 있다고 정의하며, 맥시멀 룩의 유형을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를 뒤섞어 새로운 스타일로 창조한 에스닉, 과거양식을 모방하되 내적의미와 외적 형식의 변화를 통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표현성을 갖는 복고, 과도한 장식을 통해 여성적인 곡선과 섬세함을 엿볼 수 있는 로맨틱, 과도한 디테일 장식으로 화려함을 표현하고 수공예적인 장식을 나타내는 글리터링, 과도함과 환상적인 느낌의 퓨처리즘으로 나누고 있다. 이효진(2003)³⁴⁾은 전 세계적인 민족적 요소들이 서로 공유되면서 무엇보다도 에스닉한 감각의 다문화적인 조형성과 인공미가 배제된 순수한 자연미

를 추구하는 로맨틱 히피 룩, 여성스러움과 로맨틱한 요소가 서로 공유되면서 스포츠라는 기능성이 해체된 다기능적 조형성과 크로스오버적 조형성이 특징인 로맨틱 스포츠 룩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희정(2008)³⁵⁾은 낭만적, 혼성모방, 장식주의, 다원주의로 표현된다고 하였으며, 정선화, 정현주(2009)³⁶⁾는 맥시멀리즘의 디자인 조형성이 주로

과장된 디자인으로 표현된다고 하여 과장성, 다문화적 경향의 멀티 에스닉, 광택소재나 골드, 실버 등의 소재로 독특함과 대담한 조형성의 퓨처리즘, 보다 강렬한 색채와 장식의 엘레강스, 장식성이 강조된 로맨틱으로 나누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패션의 맥시멀리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 특성

연구자	맥시멀리즘 유형	맥시멀리즘 표현방법
권정숙 (2008)	· 과장과 집중	· 구성요소의 자유로운 변형 및 탈구조성
	· 왜곡과 변형	· 신소재와 실험적 소재 사용
	· 이접과 혼재	· 로맨틱한 장식과 수공예적 표현 강조
김현진, 이은숙 (2011)	· 확대 과장성	· 글래머, 과장, 과잉성 등이 주는 육중함, 풍만함, 과도함 등의 이미지를 표현
	· 장식성	· 퓨처리즘, 키치, 글램룩, 히피룩에서 나타나는 화려함, 강조 등의 이미지를 표현
	· 혼합성	· 복고, 로맨틱 히피룩, 에스닉 등이 주는 다양성, 독특성 등의 이미지를 표현
김호정 (2005)	· 비구조성	· 비대칭과 비구조적 스타일이 주는 불균형, 왜곡성, 운동감 등의 이미지를 표현
	· 복고 스타일	· 옛것을 새롭고 독특하게 표현하고 해석
박은경 (2008)	· 에스닉 스타일	· 다양한 민족적 특징을 보임
	· 퓨전성	· 시대들의 혼합, 스타일의 혼합, 색상 및 패턴과 디테일 혼합 등의 매치
변혜진 (2006)	· 확대성	· 과장된 실루엣, 디테일의 과도한 중첩을 통한 거대 조형 등을 통한 과장
	· 장식성	· 수공예적이고 고가의 럭셔리한 장식 추구
	· 환상성	· 열린사고로 기존개념들의 한계, 제약을 넘어 디자인하는 것
	· 에스닉	· 맥시멀 룩의 유형을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를 뒤섞어 새로운 스타일로 창조
이효진 (2003)	· 복고	· 과거양식을 모방하되 내적의미와 외적 형식의 변화를 통해 새로움 표현
	· 로맨틱	· 과도한 장식을 통해 여성적인 곡선과 섬세함을 표현
	· 글리터링	· 과도한 디테일 장식으로 화려함을 표현하고 수공예적인 장식을 표현
	· 퓨처리즘	· 과도함과 환상적인 느낌
	· 로맨틱 히피 룩	· 세계적인 민족적 요소들이 서로 공유되면서 무엇보다도 에스닉한 감각의 다문화적인 조형성과 인공미가 배제된 순수한 자연미를 추구함
이희정 (2008)	· 로맨틱 스포츠 룩	· 여성스러움과 로맨틱한 요소가 서로 공유되면서 스포츠라는 기능성이 해체된 다기능적 조형성과 크로스오버적 조형성
	· 낭만적	· 로맨틱한 문양
	· 혼성모방	· 과거시대에서 영감을 얻음
	· 장식주의	· 화려하고 장식적인 스타일, 수공예적 기법
정선화, 정현주 (2008)	· 다원주의	· 에스닉 스타일
	· 과장성	· 맥시멀리즘의 디자인 조형성을 주로 과장된 디자인으로 표현
	· 멀티 에스닉	· 다문화적 경향
	· 퓨처리즘	· 광택소재나 골드, 실버 등의 소재로 독특함과 대담한 조형성 표현
	· 엘레강스	· 강렬한 색채와 장식
· 로맨틱	· 장식성 강조	

이러한 선행연구에 의하여 퓨전성, 복고, 에스닉, 로맨틱, 확대성, 장식성, 환상성, 과장성 등이 맥시멀리즘 패션을 표현하는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맥시멀리즘 패션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을 확대성, 장식성, 환상성, 퓨전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확대성

복식의 확대현상은 신체의 윤곽에 비해 공간적으로 크게 확장된 것으로서, 입체적으로 형태와 부피가 돌출 팽창하게 되고 길이가 신장된 양적 의미의 확대를 일컫는 말이다. 즉, 복식확대현상은 복식심리의 극단적인 전개에 따라 정상적인 복장의 경지를 넘어 이상 상태에까지 도달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식확대는 하나의 복식표현방식으로 무언가의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기호이며, 인간의 의지가 담긴 미적표현인 것이다.³⁷⁾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디자인 성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확대성은 디자이너의 의도적인 것으로 시각적인 자극으로 일반적인 미적 균형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는 형태를 극대화할 때 사용되거나, 시각적으로 집중 및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며 시각적 균형과 질서를 깨뜨리며 새롭고 신선한 효과를 부여한다.

2) 장식성

인간은 언제나 의복에서 편안함보다는 장식을 더 선호하였으며 장식을 함으로써 미를 통한 행복한 심리적 감정을 느끼게 되며, 복식에서의 장식은 의복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의복 내부에 장식적 디자인이 첨가되면 의복 전체의 독창적인 면을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미적 표현을 더해 의복의 가치와 개성을 높여준다고³⁸⁾ 하였다.

패션에서 장식을 도입하는 방법으로는 과거의 장식적 요소를 이용하여 고전적 의미를 재해석하

며, 이를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 모조 등의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요소를 장식적으로 복식에 도입하는 것이라 했다.³⁹⁾ 이러한 장식성은 맥시멀리즘 패션에서 과도하고 섬세한 장식과 치장, 복잡한 무늬, 수공예로의 회귀 지향을 보여주며, 많은 비용이 드는 차별화된 소재와 최고품질의 최상의 디자인, 복합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휘황찬란한 럭셔리 디자인, 수많은 값비싼 재료들로 장식한 최고품질 아이템 등을 창조할 수 있게 하면서 극단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3) 환상성

패션에서의 환상성은 매우 광범위하며 열린 사고로 기존 개념들의 한계나 제약을 넘어 디자인하는 것으로 실용성보다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상상과 동화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전위적이고 유희적인 표현을 통하여 신선한 시각적 자극과 환상을 제공하며, 일탈을 꿈꾸는 현대인에게 자유로운 상상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새로운 창작영역과 무한한 디자인 가능성을 제공한다. 복식에서의 환상성의 표현은 과도한 로맨틱한 장식이나 엘레강스한 분위기로 환상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형태를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은유와 변형, 인체의 한 부분을 확대 또는 축소시키고 위치를 옮겨 의상에 프린트하여 초현실적 표현을 나타내기도 한다. 복식에 있어서의 초현실주의 경향은 1930년대 스키아파렐리(Schiaparelli)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녀는 초현실주의 화가들을 작업에 연루시킴으로써 의상과 순수예술의 두 범주를 분리시켜왔던 기존의 개념을 붕괴시켜 현대의상의 발전에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다.⁴⁰⁾ 주로 그래픽 디자인처럼 요란하게 유희적이고 영감이 풍부한 여러 다른 이미지들을 섞는 것을 수반하거나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⁴¹⁾ 초현실적 이미지는 이전까지의 사고에서 통

제 받지 않고 자유로운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오브제를 전혀 다른 환경으로 옮겨 오기도 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익숙한 모습들을 불합리한 맥락 속에 불안정하게 배치하여 현실세계에서는 보기 힘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도 하여 우리의 눈을 새로운 사고의 전환으로 안내한다. 또한 일상의 사물들을 옮겨와 위치를 대담하게 전환하여 상상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연물을 복식에 접목하여 나타내는 것은 복식에 있어서의 초현실주의 표현의 지속적인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환상성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시각화한 것으로 새로운 복식을 창조하고, 차원을 뛰어넘은 차원으로써의 무한한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4) 퓨전성

맥시멀리즘 패션의 퓨전성은 과거지향에 미래지향의 결합 같은 시대들의 혼합, 동서양과 에스닉 등의 스타일 혼합, 다양한 색상 및 패턴과 디테일의 혼합, 여러 이질적인 소재의 매치 등이 극도로 복잡하게 섞여 표현된다. 이러한 퓨전성은 때로는 조화된 아름다움보다는 극단의 혼합으로 인한 일탈적인 미를 보이기도 한다.⁴²⁾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이 하나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퓨전성은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의 특성만 지닌 디자인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경쟁력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화, 세계화, 다문화중심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자유로운 창작과 장르 간의 구분과 표현형식의 틀을 파괴하여 다양한 디자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시각과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현대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표현방법으로 새로운 것 없는 현대 패션계에 충분한 독창

성을 제공함으로써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III. 빅터 앤 룰프 작품의 맥시멀리즘

1. 빅터 앤 룰프 작품의 디자인 특성

빅터 앤 룰프는 패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의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디자인은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패션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은 아이디어가 곧 패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개념적인 접근을 통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려하였고, 아이디어의 표현수단으로 작품을 전개해나갔다. 또한 이들은 멋진 옷을 만드는 것으로써가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하였다. 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은 초현실적 표현으로 나타났고 디자인 과정에서 형태와 장식을 과장하였으며 전통성에 아방가르드적 요소를 믹스한 퓨전적 표현을 통해 아이디어와 실험적 정신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발하고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들은 1993년도부터 1997년까지 설치작품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그들만의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이들은 앞에서 밝힌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적이고 최초의 것을 위한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1995년 패션쇼 대신 설치 형태의 전시를 하였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패션의 본질에 대한 질문보다는 슈퍼모델이나 스타 디자이너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선물 포장의 가벼움에 견주어 비판하였다. 마치 선물포장에서나 쓰일법한 골드컬러의 소재로 제작한 의상을 천정에 매달고,



<그림 9> 빅터 앤 롤프
『L' Apparence du vide』 전, 1995
(출처: <http://5osa.com/71>)

작품 바닥에는 그림자처럼 블랙 오간자로 제작된 납작한 의상을 배치하였다<그림 9>. 『L' Apparence du vide』라는 타이틀의 이 설치전시는 한쪽 벽면에 세계적인 슈퍼모델들의 이름을 써놓고, 배경음악으로는 모델들의 이름을 마치 암기하듯이 속삭이듯 말하는 목소리를 틀어놓았다. 이는 당시 유명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자신들의 디자인 철학을 표현하고 유명하지 못하면 주목받지 못하는 패션계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그들의 패션에 대한



<그림 10> 빅터 앤 롤프
1998 S/S 1st Couture Show
(출처: 『VOGUE』 별책부록 THE SHOW, 2009. 8)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듯 그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일련의 경험이나 상황, 생각들을 아이디어화 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옷 자체의 상징성과 패션쇼나 전시 자체의 전체 맥락에 본인들의 의식과 개념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오트 쿠튀르 쇼(1998 S/S)에서는 모델들이 조각상 같은 포즈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퍼포먼스는 여성을 일종의 살아있는 인형처럼 비인간적으로 보는 시각을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림 11> 빅터 앤 롤프
1999 F/W Haute Couture Collection
(출처: 『VOGUE』 별책부록 THE SHOW, 2009. 8)

었다. 모델들은 하얀 도자기로 만든 모자와 거대한 목걸이를 바닥으로 던져 산산조각을 냈는데, 이러한 제스처는 오트 쿠튀르는 본질적으로 모델이나 액세서리보다 의상에 더 치중해야한다는 디자이너의 철학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⁴³⁾고 한다<그림 10>.

1999년 오트 쿠튀르 컬렉션<그림 11>에서는 모델에게 두 디자이너가 10가지의 의상을 차례로 한 겹 한 겹 덧입혀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 실험적인 형태의 퍼포먼스는 처음에는 아주 심플한 형태의 원피스 차림의 모델이 레이스로 장식된 드레스를 덧입는 과정을 통해 의상의 완성과정을 보여주며 기존의 형태를 초과시켜 과장시키는 방법으로 오트 쿠튀르 디자이너의 거만함을 조롱하듯 표현하였다. 이 컬렉션은 'Russian Doll'이라는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인형을 열면 그 안에 작은 인형이 계속해서 나오는 러시아의 전통 인형에서 영감을 받아 한명의 모델에게 무려 9벌의 의상을 덧입히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 대한 한정된 시장성으로 이들은 2000년도부터는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야망으로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진행해나갔다. 첫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서는 이러한 야망을 표현한 듯 미국의 성조기를 테마로 클래식한 아이টে를 선보였



<그림 13> 빅터 앤 롤프 2006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으나 디자인에 있어서 경솔하였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디자인의 대중성과 실험성을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내놓은 작품들이 찬사를 받기 시작하였다.⁴⁴⁾

특히, 크로마키 기술을 이용한 <그림 12>에서는 모델이 입고 있는 파란색의 의상에 영상을 비추면 옷은 사라지고 준비된 움직이는 영상이 옷에 비춰지면서 마치 의상자체가 영화 스크린이 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컬렉션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이 컬렉션을 통하여 옷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겹이 존재하고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⁴⁵⁾ 이는 상품으로서의 디자인을 넘어 비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아이디어가 바로 패션이 될 수 있다는 그들의 디자인 철학을 대변해 준다. 이후 작품에서도 이들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한 무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실현은 계속 되었는데, 특히 <그림 13>에서는 'Upside Down'이라는 타이틀로 위와 아래가 뒤바뀐 초현실적인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기존의 개념이나 질서를 거꾸로 뒤집거나 전복시키는 작업을 즐기며 그것을 특유의 유머감각으로 표현하며 "아름다움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미스터리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며, 어떤 것이 어리숙하면서 총명할 때, 또한



<그림 12> 빅터 앤 롤프
2002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4> 빅터 앤 롤프 2010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5> 빅터 앤 롤프 2010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6> 빅터 앤 롤프 2007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7> 빅터 앤 롤프 2003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8> 빅터 앤 롤프 2010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로맨틱하면서 공격적일 때 이를 좋아한다.”⁴⁶⁾ 고 말하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창의성을 무한대로 표현하는 작업을 즐긴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계속 발전하여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2. 빅터 앤 롤프 작품의 맥시멀리즘

앞서 고찰한 맥시멀리즘 유형을 바탕으로 빅터 앤 롤프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특성을 확대성, 장식성, 환상성, 퓨전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확대성

빅터 앤 롤프 작품에서 보여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들이 햇병아리 디자이너로 처음 파리에 진출했을 때 배타적인 파리 패션계 앞에서 스스로 한없이 작아짐을 느꼈으며, 과장된 크기의 작품들을 통해 그 속에 숨고 싶은 나약한 마음과 동시에 과장된 스케일의 거대한 조형감을 통해 확장된 자아를 표출하였다.⁴⁷⁾ 빅터 앤 롤프의 작품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의 확장 과장은 패션계에서 주목받고자 한 몸부림이었다.

특히 이들의 작품에는 반복을 이용한 형태의 중첩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형태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의 의도를 증폭시키는 의미의 확

장을 말하기도 한다. 이들의 과장되고 극대화된 표현은 작품 초기부터 나타났다. 초기 작품인 1998년 ‘Atomic Bomb’라는 제목의 컬렉션에서는 원자폭탄이 터질 때 발생하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알록달록한 색상의 풍선을 넣어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형태의 과장됨을 표현하였다. 최근 2010 F/W 컬렉션에서는 1999년 오트 쿠튀르에서 선보인 퍼포먼스와 비슷한 형식을 선보였는데, 이전에는 모델에게 의상을 한 겹씩 덧입혔다면,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메인 모델이 거대한 형태의 의상을 착용한 채 마네킹처럼 서있으면 두 디자이너가 메인모델의 의상을 한 겹씩 벗겨, 뒤따라 나오는 모델에게 차례로 입혀주는 형식이었는데, 의상의 지퍼와 스트링 디테일을 이용하여 형태가 변형되고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형식을 보여주었다. 메인 모델이 속옷형식의 의상만 남았을 때는, 반대로 뒤에 나오는 모델이 아우웨어를 착용하고 나와 다시 메인모델에게 입혀주는 방식으로 지퍼와 스트링을 이용하여 확장된 형태로 착장시켜, 피날레 작품에서는 맥시멀리즘의 기본적인 개념인 최대한의 확대성과 형태의 극대화를 보여주어 거대한 조형미를 표현하였다<그림 14>, <그림 15>. <그림 16>은 모델이 직접 패션쇼의 조명을 매고 나와 자신만의 패션쇼를 연출하는 형식의 작품으로 칼라 부분과 스커트 끝자락을 조명기구 지지대에 연결



<그림 19> 빅터 앤 롤프 1998 S/S 오트쿠튀르 컬렉션, (출처: <http://blog.naver.com/brandmarka?Rdirect=Log&logNo=150099713062>)
 <그림 20> 빅터 앤 롤프 2002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21> 빅터 앤 롤프 2004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22> 빅터 앤 롤프 2005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23> 빅터 앤 롤프 2010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하여 실루엣을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또, <그림 17>은 마치 10겹의 재킷을 덧입은 것 같은 중첩된 형태감으로 제한 없는 과감한 표현을 하였다. <그림 18>은 지나치게 과장된 커프스의 중첩을 통한 과장으로 복잡한 재단의 스커트와 여러 가지 소재를 겹쳐 반복에 의한 과장된 형태로 일반적인 선을 넘어선 확대된 볼륨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9>는 신체의 왜곡된 형태감을 강조한 작품으로 인체의 일반적인 곡선을 이탈하여 새로운 시각을 선사한다.

이러한 작품은 실용성보다는 상상력의 실현으로 볼 수 있으며 실현된 작품은 조형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하였다. 패션쇼에서 작품으로 보여지는 형태의 확대와 퍼포먼스 형식의 패션쇼 과정에서 생기는 확대를 통하여 결과물뿐만 아니라 움직임마저도 시각적인 창조역할을 하고 의상과 의상이외의 것 등 보여지는 모든 면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2) 장식성

빅터 앤 롤프의 작품은 특유의 유틘트와 장식적인 요소로 더욱 독창적인 작품으로 나타난다. 이는 리본이나 러플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던가 의복

의 한 디테일을 과장시키거나 장식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반복적인 나열이나 아이টে를 중첩시키기도 한다. 특히 심플한 스타일의 의상에 장식적인 디테일을 가미한다던가,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형태자체를 장식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쿠튀르 출신 디자이너로, 뛰어난 테크닉과 수공예에 의한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소재개발과 새로운 것에 대한 실험정신으로 고정관념을 탈피한 장식을 개발하기도 한다.

<그림 20>은 화이트컬러의 셔츠와 팬츠의 가장자리에 리본을 규칙적으로 연결하여 여성스럽고 유틘트 있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 21>은 핑크와 레드컬러의 거대한 리본을 여러 겹 묶은 듯한 느낌의 드레스로 마치 선물을 포장해 놓은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이는 장식의 과장으로 인한 거대한 볼륨감으로 표현되었는데, 형태자체가 장식이 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도 장식적으로 리본을 사용하였는데, 블랙슈트에 여러 개의 리본 디테일을 크기별로 사선으로 붙여 장식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심플한 스타일의 의상에 과장된 장식을 가미하는 방식은 장식 자체를 더욱 강조하고 특히 과장된 형태의 디테일은 유틘트와 즐거움을 유발한다. 또, <그림 23>는 블랙재킷에 쉬폰 소재



<그림 24> 빅터 앤 로프 2009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25> 빅터 앤 로프 2005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26> 빅터 앤 로프 2004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27> 빅터 앤 로프 2008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28> 빅터 앤 로프 2008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의 러플장식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네크라인이 강조되고, 특유의 과장된 형태감을 보여주었다. <그림 24>는 수공예에 의한 독특한 오간자 소재 드레스로, 다양한 컬러의 스와로브스키를 장식하여 섬세하고 정교한 소재표현을 강조하였다. 또한 컬러풀한 스트라이프 의상에 화려한 크리스털 장식을 더하여 차별화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장식성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빅터 앤 로프 작품의 주요한 표현방법으로 이들의 중요한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다.

3) 환상성

로프는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패션과 관련된 미디어와 접할 기회가 매우 적었고 많은 시간을 내가 보았던 얼마 되지 않은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으면서 내가 꿈꾸는 패션에 대해 몽상하면서 보냈다.”고 하였다.⁴⁸⁾ 이처럼 패션과 멀리 있었던 어린 시절로 인하여 고정관념과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패션에 접목할 수 있었고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아이디어로 승화시켜 패션에 실현하였다. 이들은 패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작품화시킴으로써 패션이 옷 이상의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 현실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이들의 표현처럼, 이들에게 패션은 현실을 벗어난 환상의 세계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마법 같은 것이었다.⁴⁹⁾ 이처럼 이들의 상상속의 패션은 이상적인 세상이었고, 단순한 의상 이상의 것을 실현할 수 있는 표현 도구이다. 특히, <그림 25>는 레드컬러의 강렬한 색감이 돋보이는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마치 베개 위에 누워있는 듯 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특히 침대 위를 그대로 옮겨온 듯 한 모습의 모델은 의도적으로 묘사된 머리카락 연출로 인하여 베개위에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 정지한 것 같은 이미지로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패션쇼 장으로 옮겨와 시·공간을 초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베개위로 늘어져있는 머리카락과 마치 잠을 못자 눈이 충혈된 듯 한 이미지의 레드컬러 아이메이크업으로 더욱 환상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이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이 의상과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 이미지를 더욱 극대화하고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26>은 현대적이고 매니쉬한 슈트에 사슴뿔의 형상을 헤어에 연출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는 작품으로 자연의 신비로움과 환상이 웨어러블한 의상과 함께 어우러져 더욱 극대화된 판타지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인 것을 대변하는 웨어러블한 의상과 사슴뿔이 상징하는 자연의 이미지가 만나 모던한 의상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이미지를 동화적이면서도 현실세계에 존재

하지 않는 미지 즉, 초자연의 세계를 제시한다. 이러한 제시는 작품을 감상할 때뿐만 아니라 감상한 후에도 계속 보는 이의 뇌리에 남아 진정한 환상성을 제공한다. 또한 장식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심플한 의상에 과감한 액세서리를 더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미지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7>은 과장된 러플의 핑크컬러 드레스에 바이올린모티프가 실제 사이즈로 장식되었는데, 이는 만레이(Man Ray)의 초현실주의 사진인 앵그르의 바이올린(Ingres's Violin, 1924)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위치에 모양을 입체적으로 연출하여 초현실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특히 일상적인 사물이 이동한 형상의 작품은 상징적이고,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충격을 주며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 한 착각을 일으킨다. 또, <그림 28>은 그레이컬러의 코트에 입체적으로 “NO”의 알파벳을 새겨 넣어 점점 더 상업주의로 변해가는 패션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다. 빅터 앤 롤프 작품에서 보이는 환상성은 현실을 벗어난 이유 있는 자유로운 상상의 표현이며, 특유의 유머러스한 감각으로 패션계의 세태를 풍자하였다. 또 이들은 인터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⁵⁰라고 하여 부정적인 감정까지 시각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자하는 이들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유머러스한 표현을 통하여 그들이 가진 가치관과 개념을 알리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표현하는 부정에 대한 유희적 표현은 보는 이로 하여금 유희적 쾌락과 함께 자유, 즐거움의 감정 또는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 사고를 느끼게 한다. 상상력을 무기로 한 독창적이고 유머러스한 감각은 기발한 이들의 디자인 성향을 표현하는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환상성을 특징으로 한 작품들은 마치 꿈속과 같은 환상적인 이미지로 독창성과 예술적인 느낌으로 초현실적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시각적으로 더욱 자극적이고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새로운 미의 영역을 제시한다.

4) 퓨전성

빅터 앤 롤프는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초현실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을 많이 선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기본에 충실한 클래식 아이템에 대한 존중이 있다. 오토 쿠튀르 디자이너로 출발을 한 이들은 뛰어난 테일러링 테크닉과 소재를 다루는 감각, 독창적인 디자인 감각으로 클래식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들의 실험적인 감성은 클래식의 오리지널리티를 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클래식을 유지하면서도 독창적인 그 무언가를 덧붙여 자신만의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감성은 작품에도 그대로 나타나 클래식과 아방가르드의 공존을 만들어 나갔다.

<그림 29>는 모자, 블라우스, 재킷, 팬츠의 클래식한 아이템에 모델의 헤어스타일부터 얼굴, 손, 발끝까지 보이는 것은 모두 올 블랙컬러로 통일하여 클래식한 아이템에 전위적인 요소를 더하여 전통성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실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클래식과 아방가르드의 만남이 빅터 앤 롤프의 클래식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를 표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전형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그림 29> 빅터 앤 롤프
2001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30> 빅터 앤 롤프
2006 F/W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않는 모습이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그대로의 표현 보다는 자신들만의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으로 나타나 오히려 디자인 요소의 감성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 클래식한 아이템의 <그림 30>은 올리브 그린 컬러의 오프숄더 드레스에 메탈릭한 실버장식이 접목되었다. 이는 아기의 첫 신발을 은으로 도금하여 기념품으로 지니고 있는 네덜란드의 풍습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의상에 보여진 실버장식은 바로 은도금에 의한 것이었다. 이들은 빠르고 쉽게 변하는 패션의 속성에 영원함을 주기 위한 욕망의 표현으로 은도금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디자인의 의상과는 상반되게 격자형태의 마스크를 모델이 착용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의상에 전위적인 요소와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림 31>은 최근의 빅터 앤 롤프에서는 보기 드문 레트

로 스타일의 의상으로 의상의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매니쉬 하나 에스닉한 패턴과 레트로 경향의 컬러가 60년대 스타일을 떠오르게 한다. 이것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레트로의 접목으로 퓨전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31> 빅터 앤 롤프 2003 S/S 컬렉션. (출처: <http://www.style.com>)

이와 같이 이들은 전통적인 것을 그대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성격이 다른 것들을 하나의 결과물로 나타냈다. 특히, 클래식한 아이টে에 과장된 디테일을 첨가하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재를 접목한다거나 의상과는 다른 분위기의 액

<표 2> 빅터 앤 롤프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특성

	확대성	장식성	초현실성	퓨전성
표현 방법	·형태의 확장과 과장, 극대화 ·반복을 이용한 형태의 중첩 ·실루엣과 길이의 확장 ·과장된 커푸스의 중첩을 통한 과장, 복잡한 재단의 스커트와 여러 가지 소재를 접침	·리본과 러플의 과다사용 ·의복의 한 디테일을 과장시키거나 장식의 도구로 사용 ·반복적인 나열이나 아이템의 중첩 ·수공예에 의한 섬세하고 정교한 소재 표현	·현대적인 이미지에 자연 이미지를 매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물체를 이동한 듯 한 표현 ·웨어러블한 의상과 초현실 감각의 액세서리를 매치 ·알파벳을 코트에 입체적으로 새겨 넣어 현실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표현	·클래식한 의상과 아방가르드한 메이크업과 소품연출 ·클래식 의상에 은도금을 하여 퓨전을 표현 ·격자형태의 마스크를 클래식한 의상에 매치 ·매니쉬한 디자인의 롱재킷과 에스닉한 패턴, 레트로 컬러의 매치
표현 효과	·거대한 조형미를 표현 ·퍼포먼스 형식의 패션쇼 과정에서 생기는 확대 ·반복에 의한 과장된 형태로 일반적인 선을 넘은 과장된 볼륨감 표현 ·인체의 일반적인 곡선을 이탈하여 새로운 시각을 선사 ·신체의 왜곡된 형태감 강조	·특유의 위트로 독창적 표현 ·장식의 과장으로 거대한 볼륨감을 표현 ·심플한 의상에 장식적인 디테일을 가미하여 표현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형태 자체를 장식적으로 표현 ·고정관념을 탈피한 장식 개발	·패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표현 ·일상의 사물이 이동한 형상의 작품은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신선한 충격을 줌 ·헤어, 메이크업이 의상과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 이미지를 구체화	·클래식한 아이টে에 전위적인 연출요소를 적용하여 아방가르드하게 표현 ·클래식한 아이টে에 은도금을 하여 퓨전을 표현 ·클래식함과 아방가르드를 표현 ·현대적 이미지와 에스닉, 레트로를 표현
의미	·확대된 크기의 작품을 통해 나약함과 확장된 자이를 표현 ·디자이너의 의도를 증폭, 각인시킴	·새로운 것에 대한 실험정신으로 고정관념을 탈피한 장식을 개발함으로써 위트와 즐거움을 유발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환상적 이미지로 독창성과 예술적 느낌으로 초현실 세계 표현 ·부정적인 감정을 유머와 상상력으로 표현, 가치관과 개념을 알리고자함	·쿠튀르 디자이너로의 클래식 에 대한 존중 ·어떤 기준의 개념이든 다른 유형으로 섞일 수 있고, 재탄생될 수 있어 무한한 디자인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

세서리를 매치하는 방법으로 클래식의 오리지널리티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믹스하여 선보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전통성과 아방가르드의 결합, 현대와 레트로의 스타일 혼합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장르 간의 구분을 없애고 하나의 작품에서 다양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퓨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패션 이미지, 패션에 대한 요소 등 어떤 기존의 개념이든 또 다른 유형으로 섞일 수 있고, 재탄생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무한한 디자인의 개발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다룬 빅터 앤 롤프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특성을 표현방법, 표현효과, 의미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IV. 결론

과도함과 극단을 추구하는 맥시멀리즘은 새로운 과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현대 패션계에 무한한 상상력과 실험적인 디자인, 기술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시 여기는 현대패션경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디자이너의 감각을 실현하는 표현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새로움 추구에 대한 갈구로 창의적인 감각을 요하는 디자인의 도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맥시멀리즘 경향은 모든 것이 넘쳐나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패션계에 고정관념을 벗어난 무한한 아이디어의 표현 수단으로 흥미롭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과도함과 극단적인 형식의 확장으로 대두된 맥시멀리즘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발상과 실험적인 작품세계를 지니고 있는 듀오 디자이너 빅터 앤 롤프의 작품을 통하여 맥시멀리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

여, 무한한 잠재적 표현영역을 확인하고 새로운 미적가치를 규명 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빅터 앤 롤프의 모든 작품에는 그들의 개념과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있었는데, 내적 의미의 고찰로 위축되고 작아진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그러한 감정들을 오히려 맥시멀리즘적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 빅터 앤 롤프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특성은 확대성, 장식성, 환상성, 퓨전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빅터 앤 롤프 작품의 맥시멀리즘 특성은 확대성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맥시멀리즘의 사전적 의미인 ‘최대한의, 극대의’란 뜻에 걸맞게 최대주의를 내세우며 표현방법에서도 조형적으로 거대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형태의 확장과 과장은 거대한 조형감을 통한 확장된 자아를 표출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장식성은 이들 특유의 위트와 독창적인 디자인 세계를 장식적인 요소로 발전시켜 리본, 러플의 과다사용으로 나타났으며, 장식의 과장으로 거대한 볼륨감이 나타났으며, 의복의 한 디테일을 장식 자체로 사용하거나, 장식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심플한 스타일의 의상에 과장된 장식 디테일을 가미하는 방식이 주로 나타났으며, 수공예에 의한 섬세하고 정교한 소재표현으로 오브제 자체가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나타났다. 이는 완벽한 테크닉으로 표현되어 독창적인 디자인 세계를 표현하는 도구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환상성은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패션에 접목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으로 일상적인 사물을 형상화한 작품은 상징적이며,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충격을 준다. 이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작품화시킨 것으로 환상적인 느낌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였는데, 작품에서 보이는 환상성은 현실을 벗어난 이유 있는 자유로운 상상의 표현이며, 특유의 유머러스한 감각으로 패션계의

세태를 풍자하기도 하였다. 빅터 앤 롤프의 가치관은 작품을 통해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혹은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술가의 진정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초창기 배타적인 패션계에 대한 소외감이나 창작과정에서의 희열과 좌절 등을 작품에 표현, 그것이 맥시멀리즘이라는 표현특성으로 창작되었다. 부정적인 감정까지 시각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자하는 이들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유머러스한 표현을 통하여 그들이 가진 가치관과 개념을 알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환상적인 분위기는 의상뿐만 아니라 헤어, 메이크업, 액세서리, 나아가 무대장치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 의미전달을 구체화시켜줌으로써 토털 패션으로의 개념의 이해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퓨전성은 서로 다른 이미지의 믹스로 나타났는데, 전통적인 클래식과 전위적인 아방가르드의 믹스가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시한 아이템에 과장된 디테일을 첨가시키거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소재를 접목하는 방법으로 클래식의 오리지널리티를 독창적인 그들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선보였다. 이러한 퓨전성은 의외성의미를 창조하기도 하고, 독특한 감성을 보이는 특성으로 기존의 미와는 다른 새로운 미의 영역을 제시한다. 이는 어떠한 유형이라도 서로 다른 것과 믹스되어 또 다른 유형으로 섞일 수 있고, 재탄생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무한한 디자인의 개발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특성만 지닌 디자인보다는 다양한 디자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충분한 독창성을 제공함으로써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실험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빅터 앤 롤프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경향은 그들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상상력을 기술력과 결합하여 과도함과 극단을 표현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상력과 아

이디어를 바탕으로 표현된 작품들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기존의 틀의 갓 상상이상의 작품들이었고 이 또한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분출하는 수단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독창적이면서도 극적인 표현으로 새로운 미의 영역을 제시해주는 이들의 실험정신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패션계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주목받는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들은 천편일률적인 패션계에서 고정관념의 경계를 넘어 예술과 감성을 맥시멀리즘을 통해 표현하여 새로운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실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빅터 앤 롤프는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패션을 지향하며, 그것의 실현을 위하여 맥시멀리즘을 하나의 표현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형태의 과도한 확장과 장식의 과대사용, 현실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초현실적인 판타지, 쿠튀르 디자이너로서의 클래식에 대한 갈구를 바탕으로 완성되는 퓨전의 결과로 제시되는 새로운 미의 세계는 맥시멀리즘으로 표현된 이들의 무한한 표현 영역이다. 이들의 상상력을 패션으로 실현시키는 능력과 모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실험적 시도가 계속되어 더욱 창의적이고 기발한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호정 (2005). 과장형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1.
- 2) 성광숙 (2003). 복식 확대현상의 미적가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97.
- 3) 변혜진 (2006). 21세기 맥시멀 룩(Maximal Look)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2.
- 4) 박은경 (2008). 현대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8(3), pp.1-18.
- 5) 이효진 (2003). 현대 복식에 표현된 맥시멀리즘 연구,

- 복식문화연구, 11(2), pp.275-292.
- 6) 김현진, 이은숙 (2011).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패션디자인의 표현성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3(1), pp.7-16.
- 7) 정선화, 정현주 (2009).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패션 표현유형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 11(1), pp.155-167.
- 8) 김지영 (2010). 빅터 앤 로프의 디자인 발달과 작품 특성, 복식, 60(10), pp.47-64.
- 9) 이영민, 이연희, 박재욱 (2007). 빅터 & 로프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 복식문화연구, 15(2), pp.352-367.
- 10) 김옥동 (1992).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문화예술, 150, p.17.
- 11) 동아 프라임 영어사전. 자료검색일 2011. 10. 17. <http://endic2009.naver.com/endic.nhn?docid=705050&rd=s>
- 12) 박은경. 앞의 논문, p.2.
- 13) 김정연 (2006). 맥시멀리즘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 14) 김현진, 김혜경 (2011).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메이크업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3), p.102.
- 15) 김호정. 위의 논문, p.62.
- 16) 변혜진. 위의 논문, p.3.
- 17) 이효진. 위의 논문, p.291.
- 18) 이희정 (2008). 2000년 이후 맥시멀리즘적 헤어스타일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 19) 김옥동. 앞의 책, p.18.
- 20) 김현진, 김혜경. 앞의 논문, p.102.
- 21) 박은경. 앞의 논문, p.4.
- 22) 위의 논문, p.4.
- 23) 신상옥 (2006). 서양복식사(개정 5쇄), 서울: 수학사, p.147.
- 24) 정홍숙 (2001). 서양복식사(개정 8쇄), 서울: 교문사, pp. 202-203, p.208.
- 25) 고애란 (2008). 서양의 복식문화와 역사. 서울: 교문사, p.192.
- 26) 배수정 외 (2008). 현대패션과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수학사, p.187.
- 27) 이희정. 위의 논문, p.5.
- 28) 김현진, 김혜경. 앞의 논문, p.102.
- 29) 권정숙 (2008). 구두디자인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특성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6), pp.836-847.
- 30) 김현진, 이은숙. 앞의 논문, p.9-10.
- 31) 김호정, 김순자 (2005). 현대패션에서의 과장형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6), p.36.
- 32) 박은경. 앞의 논문, p.13-15.
- 33) 변혜진. 앞의 논문, p.10-25.
- 34) 이효진. 앞의 논문, p.291.
- 35) 이희정. 앞의 논문, p.46.
- 36) 정선화, 정현주. 앞의 논문, p.157-160.
- 37) 성광숙. 앞의 논문, p.181.
- 38) 이희정. 앞의 논문, p.59.
- 39) 이희정. 앞의 논문, p.59.
- 40) 김지영. 앞의 논문, p.355.
- 41) 박은경. 앞의 논문, p.15.
- 42) 위의 논문, p.13.
- 43) 김지영. 앞의 논문, p.54.
- 44) 위의 논문, p.49.
- 45) 이영민, 이연희, 박재욱. 앞의 논문, p.360.
- 46) Evans, Caroline & Frankel, Susama (2008). The House of Victor & Rolf. London, New York: Merrell. p.178.
- 47) 김지영. 앞의 논문, p.59.
- 48) 위의 논문, p.52.
- 49) 위의 논문, p.51.
- 50) 위의 논문, p.52.

A Study of Maximalism Shown in the Works of Victor & Rolf

Lee, Ji Hyun · Roh, Youn Sun⁺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Dongseo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seo University⁺

Abstract

Maximalism, which pursues excess and extremity, is appearing diversely in the modern fashion world, leading to a new and exciting combination of infinite imagination, experimental design and technical elements. This concept in contrast to the trend of modern fashion, which attaches importance to functionality and practicality, is being used as an expression method to realize the sensibility of a designer. This study analyzes works by Victor & Rolf, which draw attention with original designs, while focusing on maximal characteristics with an aim to identify the potentially infinite expression area of maximalism through their design sensibility and expression method, and proposes basic data for developing a creative design. This study considered maximalism brought to the fore by expanded excess and extreme formality as a foundation, and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maximalism through the works of duo designer Victor & Rolf who have creative ideas and an experimental realm of work.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maximalism shown in the works of Victor & Rolf were found to be expansion, ornamentation, fantasy and fusion. First, expansion, a typical characteristic of maximalism in the works of Victor & Rolf, present maximalism in agreement to its lexical meaning 'maximal, maximum' mostly using an expanded form and exaggeration in expression method. Second, ornamentation was revealed through excess use of ribbons and ruffles by developing their unique wit and original realm of design into decorative elements, and they expressed a gigantic volume with ornamentation itself and exaggerated one detail of the garment or used it as an instrument for ornamentation. Third, fantasy gave a fresh impression by combining unconventional, free imagination with fashion, and works with a shift of casual things were symbolic and shook general fixed ideas. Fourth, a fusion element was typically expressed by mixing traditional classics and radical avant-garde factors.

Key words : Victor & Rolf, maximalism